제11강 나희덕의 「상현」

(1, 2교시)

상현(上弦)

차오르는 몸이 무거웠던지
새벽녘 능선 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다

神도 이렇게 들키는 때가 있으니!

때로 그녀도 발에 흙을 묻힌다는 것을
외딴 산모퉁이를 돌며 나는 훔쳐보았던 것인데
어느새 눈치를 챘는지
조금 붉어진 얼굴로 구름 사이 사라졌다가
다시 저만치 가고 있다

그녀가 앉았던 궁둥이 흔적이
저 능선 위에는 아직 남아 있을 것이어서
능선 근처 나무들은 환한 상처를 지녔을 것이다

뜨거운 숯불에 입술을 씻었던 이사야처럼

1. 나희덕에 대하여

나희덕은 1966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하였다. 1989년 신춘 중앙문예의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데뷔하였다. 연세대학교 국문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힘> 동인이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계간 『창작과비평』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1998년에 민음사 주관 제17회 김수영문학상(『그곳이 멀지 않다』), 2001년에 김달진문학상(시부문)과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학부문), 2003년에 제48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시집으로 『사라진 손바닥』, 『어두워진다는 것』,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뿌리에게』 등을 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 시의 흐름

(1) '상현의 달-차오르는 몸-생명의 잉태-여인의 모습'

(2) '신(神)-이사야' : (생명을 주는) 삼신할머니와 (생명을 받는) 여인

(3) '흔적-상처' : "그녀가 앉았던 궁둥이의 흔적"-"나무들은 환한 상처"

3. 뜨거운 숯불에 입술을 씻었던 이사야

- 선지자 이사야
- 뜨거운 숯불 : 상처의 흔적, 모성(母性)과 모성(母聖)-생명의 성(聖, 性)스러움.
- 황해도 (내림)굿의 작두거리 : 장군거리의 장군의 위용과 성스러움.

4. 남는 문제 : 왜 새벽이어야 했을까

- 새벽의 외출 : "외딴 모퉁이를 돌며"
- 상현인가, 하현인가 : '하현'의 오류?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